

시장경제주의자 브로델의 자본주의 비판

(매)탈부르주아



페르낭 브로델은 프랑스 아날학과 2세대의 대표적 역사학자임.
특징으로는 아무도 읽지 않을 더럽게 긴 책들을 쓴다는 점이고 까치글방에서 이걸 또 완역해준다는 점임.
난 도저히 이 많은 양을 읽을 수 없어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의 대중강연판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를 조금 읽음.

아날학파는 마르크스주의와 비슷하게 장기지속의 사회사를 강조하는 어찌구.. 이거는 맑역사학 글 쓰면서 쓸거니까 생략하고

특히나 마르크스와의 눈에 띄는 차이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치.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관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브로델은 자본주의의 실체가 상부구조에 있다고 생각함.

브로델은 레닌이 자본주의의 최종 형태가 독점이라고 본 것을 비판함.
자본주의가 독점이 아니라는게 아님.
오히려 자본주의의 본질은 언제나 독점이었다는 것.
자본주의의 본질이 시장경제가 아니라 경쟁을 억제하는 반시장이라는 것.

브로델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배격함.
사회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기 때문.
브로델의 대안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경제 그 자체.
(내가 이 책을 전부 읽은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모르겠음)

사실 브로델은 이론가는 아님.
개념의 엄밀한 규정보다 장기지속되는 현상으로서 자본주의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함.
그래서 브로델은 분명한 대안을 제기하지는 않음. (그래서 뭔가 안캡스러우면서도 뭔가 또 다른 애매함이 있다)
또 그의 자본주의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분명히 있음.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으로서 비-마르크스주의적인 브로델의 해석도 충분히 생각할거리를 던져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람.
(원저는 너무 긴 데 반해 브로델 강연집인 이 책은 매우 짧고 읽기 쉬운 문체이므로 꼭 읽어보시길)

- 노자에게 지혜를 청한 세관원에게도 감사해야 한다.